

국악의 세계화를 통한 문화한국 이미지 창출

김 경 희 ·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새 예술정책에서의 전통예술 분야 내용을 살피기 전에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는 용어사용에 대한 문제다. 이번 정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악’ 분야에 대한 용어는 ‘전통예술’로 칭해지고 있다. 그런데 ‘전통’이란 현재라는 개념보다는 과거지향적인 의미가 강한 용어이며, 현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창작이라는 개념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용어이다. 게다가 ‘예술’이라는 영역은 무형과 유형의 예술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번 새 예술정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음악적인 면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분과명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용어는 역사적 연속성을 보유한 주제적 음악인 ‘한국음악’의 준말로서의 의미인 ‘국악’이 되어야 마땅하나, 새 예술정책에서의 국악분야는 전통예술 분야로 이름지어졌다. 따라서 새 예술정책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유형의 예술을 제외한 무형의 것만을, 또한 ‘악가무(樂歌舞)’ 일체(一體)를 아우르는 ‘국악’이 아닌 무용을 제외한 ‘악가(樂歌)’만을 한정하여 다루고 있다. 현 시점에서 유용하며 생활음악으로 깊숙이 파고들어가는 바람직한 미래음악으로서의 새로운 ‘국악’의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야함을 말하고 싶다.

둘째는 비록 무대의 형태는 다르지만 ‘국악(여기서는 ‘전통예술’) 역시 무대예술 분야의 한 부분임에도 공연예술 부문과 분리되어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연예술 분야에서 지적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와 제시되는 내용들은 ‘국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며, 함께 고민해야 할 대상임을 지적하고 싶다.

21세기에 들어 대중문화의 추세는 유행보다는 매니아 중심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떠한 큰 흐름 속에

편승하기보다는 개성과 취미, 관심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매니아적인 몰입은 아마추어의 경지를 넘어 준전문가적인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매니아들의 움직임은 사회전반에 걸쳐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악분야에서도 활성화된 국악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저변확대가 활발하고 깊이있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그동안 서양음악 중심으로 흘러가던 음악계가 월드뮤직이라는 전세계 각 민족의 전통음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 내에서도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악분야 예술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악정책이 없었다는 점이다. 문화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원에는 전통예술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의 정책을 입안할 만한 전문가가 없었고, 따라서 한국의 문화정책이란 한국적 문화특성을 무시한 채 서양의 문화정책을 일방적으로 모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인 정책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급측면에 있어서 일부계층을 중심으로 한 국악의 왜곡 현상(풍물 등) 심화, 단편적이고 흥미위주로 편성되는 한국문화 선양사업, 국악전문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책 부재로 인한 국악 소외의 악순환 등을 꼽을 수 있다. 둘째는 새로운 전통의 창출 여건 조성 측면에 있어서 전통국악의 원형 보존과 전통음악어법에 의한 창작여건 조성 실패로 인한 창작국악 분야의 양악 의존도 심화, 대중성 확보를 표방한 국적불명의 국악운동 전개, 창작국악에 대한 장기지원정책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셋째, 국악의 내실화 측면에 있어서 원형탐구 중심의 국악문화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악 음향·조명 등 국악공연 분야 전문가의 절대 부족과 함께 무대전문가에 대한 교육제도가 개발되어 국악 관련 전문인구가 확대됨으로써 국악의 고급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국악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의 미흡으로 여전히 생활음악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국민들과 격리된 채 즐기고 누리지 못하는 특수음악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제 7차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초·중등학교의 음악교과서 국악 비율이 30~40%로 확대되었으나 이를 가르칠 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의 국악교육 비중은 예전과 동일하고 전체 이수 학점(약 50학점) 가운데 2학점~4학점에 불과함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확대된 국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의 국악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국악교육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새 예술정책에 있어서의 국악분야는 국악창작 활성화와 국악 공연의 정통성 확보 및 전통공연의 현대화 모색, 국악 전문인력 양성 및 국악 전문교육을 통한 국악 향유층의 확대, 국악의 세계화를 통한 문화한국 이미지 창출,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전략으로 ▶전통 음악 어법에 의한 국악 레파토리 확장 ▶국악의 생활음악화 ▶다양한 분야의 음악으로 국악 분야 확대 ▶동아시아 중심 음악으로서의 국악 위상 정립 ▶장기적·체계적 국악정책 추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중점적인 정책과제로서

1. 전통예술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측면에 있어서는 ▶전통

예술 원형 연구 및 레파토리 개발 ▶퓨전 국악경연대회 개최 ▶창작곡 개발 활성화 ▶국악 평론가상 제정

2. 전통예술 인프라 조성 및 운영활성화 측면에 있어서는 ▶국악정책 연구소 설치 ▶국악 FM방송의 전국방송화 ▶국악 전용공연장 설치

3. 전통예술 향수기회 확대 측면에 있어서는 ▶해외 국악 보급 ▶청소년 국악 동호회 지원 및 국악 동아리 축제 개최 ▶국악 예술영화 제작 ▶국악소재 실용음악 개발

4. 전통예술 교육 및 인력 양성 측면에 있어서는 ▶국악을 테마로 한 청소년 수학여행 ▶국악강사풀제 운영 확대 ▶영재 국악학교 운영 확대

5. 법 및 제도 개선 측면에 있어서는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제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전통의 정통화를 통하여 주체성 있는 미래음악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악은 일제강점기를 통하면서 왜곡되고 굴절되었던 모습을 원형으로 되돌리는 문제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음악을 바람직한 미래 음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째, 정통성 회복을 통한 다채로운 국악 공연문화의 확대와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레파토리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셋째, 국악 정책연구소의 설치를 통한 장기적이고 주체적인 국악정책의 추진을 실시한다. 넷째, 국악 전문교육의 질적 향상과 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함께 국악 고유의 음향과 음색에 대한 연구 및 회복은 국악의 고급화와 전문화에 필수 요건이다. 다섯째, 생활음악으로서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접할 수 있으며, 취미활동을 통하여 국악에의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 기회를 넓혀야 할 것이다. 🌿